

[연변 민생실사 — 위생건강위원회편]

실제행동으로 민생복지 건강토대 튼튼히 구축



건강은 인민 행복의 근본이고 사회 발전의 토대이며 위생건강사업은 국가의 경제, 인민의 생활과 관계된다.

올해, 연변조선족자치주위생건강위원회는 주당위와 주정부의 강력한 지도하에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가와 성, 주의 제반 결책 포치를 깊이 실행했다. 동시에 기층봉사 능력 향상, 학교와 지역간 협력 강화, 가정의사 계약봉사 강화, 유아건강검진항목 실시 등 민생에 관련된 실제적인 일을 참담게 실행하여 대중들의 위생건강 획득감과 행복감을 제고하기 위한 민생 행복 답안지를 작성했다.

10월 13일, 길림대학중일련의병원 갑상선, 유선외과 전문가인 변학해교수는 안도현인민병원에서 진찰, 화진과 수술교수 활동을 전개하여 군중들에게 의료봉사를 제공한 동시에 기층병원을 도와 진료기술을 향상시켰다. 성급 전문가들이 가져다준 편리, 량질의 의료봉사는 안도현의 군중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은 “지금은 멀리 가지 않고도 성급 전문가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아주 편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주위생건강위원회는 길림대학의 여러 병원을 초청하여 돈화시, 안도현, 왕청현 등 현시 의료기구와

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켰다. 길림대학제1병원, 길림대학제2병원, 길림대학중일련의병원은 돈화시 병원, 왕청현인민병원과 안도현인민병원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찰과 교수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기층 군중들로 하여금 가까운 곳에서 성급 전문가의 량질 의료봉사를 누리게 했고 현금 의료기구의 전반적인 의료봉사 수준을 향상시켰다. 지금까지 길림대학의 3개 병원에서는 루계로 23명의 장기진찰 전문가, 326명의 정기진찰 전문가를 파견하여 6,180명의 환자를 접수하고 349차의 수술을 진행했다.

의학 전문 인력의 양성은 의료봉사 수준을 제고하는 관건이다. 올해 주위생건강위원회는 73명의 향진위생원 원장, 19명의 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 주임, 8명의 현(시) 위생건강국 책임자들을 상대로 강습을 조직했다. 강습을 통해 기층 의료봉사 능력을 확실하게 제고시켰고 인민대중들의 만족도를 부단히 향상시켰다.

“우리처럼 거동이 불편한 로인들이 병원을 한번 가자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정의사가 있어 불편할 때 전화를 하면 집까지 찾아와 진료해주어 너무 편합니다.”

돈화시 강남진 상석촌의 74세 나사 장계영로인은 다년간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최근에는 당뇨병증후군이 생겼고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가 힘들었다. 가정의사와 계약하면서 장계영로인은 집문을 나서지 않고도 전문적인 진료 봉사를 누릴 수 있어 기뻐했다.

년초부터 주위생건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가정의사 계약봉사를 구체화했으며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65세 이상의 로인, 장애인, 심각한 정신질환자,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등 중점 계층을 대상으로 계약봉사를 실시하고 봉사 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대했다. 현재 전 주적으로 총 789개의 가정의사팀이 있다.

구성원은 3,907명으로 군중들의 진료 개성과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키고 있다.

녀성과 아동의 건강은 전체 국민 건강의 초석이며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조국의 희망과 민족의 미래와 관계된다. 1년간 주위생건강위원회는 전 주적으로 신생아 유전대사병에 대해 무료 선별검사를 전개하여 신생아의 유전대사병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아동 정신장애의 발생률을 낮추어 인구 자질을 한층 제고시켰다. 현재 전 주적으로 이미 4,177명에 달하는 신생아 유전대사병 선별검사를 완성했다. 동시에 주위생건강위원회는 2,467명의 학령아동들에게 무료로 치아구 봉폐(齿窝沟封闭) 봉사를 제공하고 학령아동들에게 치아건강지식을 선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고 지켜주며 위생건강 의식이 군중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했다.

주위생건강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건강은 수많은 가정과 이어지고 인민대중의 복지와 관계된다는 신념으로 “향후 계속 군중들의 곤난과 걱정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위생건강 봉사 질을 제고하며 전 주 여러 민족 인민대중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건강한 연변 건설에 전력을 다해 실제적인 행동으로 민생복지의 건강토대를 튼튼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화기자



연변 저소득 인구 근친인증기록 관리방법 발표

사회구조사업의 공개, 공평, 공정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연변에서는 〈연변주 저소득 인구 근친인증기록 관리방법〉을 발표해 전 주 저소득 인구 인증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표준화했다.

방법의 발표는 기존 인증 기제에 대한 중요한 보완이며 연변 저소득 인구 근친인증기록 사업에 보다 상세한 법률 근거를 제공했다. 방법은 최

저생활보장 등 사회구조 심사 과정에서 근친을 우대하는 현상을 근절함으로써 모든 구제자금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했다.

방법은 인증 대상의 범주를 확대했는바 최저생활보장 가정, 특수 곤경 부양 가정 등 외에도 최저생활보장 소외 가정, 강성 지출 빈곤가정 및 현

(시)에서 확정된 기타 빈곤가정 등 저소득 인구와 립시구제 가정을 포함시켰다.

방법은 저소득 인구 근친인증기록 관리 규정을 세밀화했다. 현금 민정부문, 향진(가두)은 기록 대상에 대해 100% 방문 검증을 실시하고 방문 검증표를 참담게 작성하며 검증인, 검증 대상이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이고 정

책의 공신력을 높였다.

방법은 부정행위, 근친 우대, 위법 조작 등 방식으로 저소득 인구로 인정된 경우 위법적으로 받은 사회구제자금을 회수하고 문제 단서를 동급 규률 검사감독부문에 이송하며 상황이 심각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다.

/ 연길뉴스넷

연변 인공관절 비용 평균 하락률 85%

7가지 의료용 소모재 집중대량구매 락찰가 적용

연변에서는 11월 20일부터 국가 조직 인공관절 집중대량구매 재계약 및 성급 의료련맹 부분적 의료용 소모재에 집중대량구매 락찰가를 적용하게 된다.

18일, 주의료보장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이 정책이 실시되면 입원치료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한층 경감시키게 된다.

이번에 집중대량구매 락찰가를 적용하는 의료용 소모재는 크게 두가지인데 한가지는 국가 인공관절 집중대량구매에 따라 재계약한 인공관절 소모재이고 다른 한가지는 성급 의료련맹에서 집중대량구매하는 무침 연결부속품(无针连接件), 헤파린 회류

방지용 캡(肝素帽), 일회용 위관(一次性使用胃管), 일회용 코위튜브(一次性使用鼻胃管), 일회용 정맥영양액(一次性使用静脉营养袋), 일회용 음압 배농 상처보호재료(一次性使用负压引流护创材料) 등 6가지 의료용 소모재를 망라해 총 7가지 의료용 소모재이다.

현재 주내 15개 의료기구에서 국가 조직 인공관절 집중대량구매 재계약 수량 보고 사업에 참여한 정황을 보면 연변의 한해 계약 수요량은 약 859세트에 달하며 첫째 대비 수요량이 28% 증가했고 비용의 평균 하락률은 85%에 달했다. 또한 주내 19개 의료기구에서 무침 연결부속품 등 6가지 의료용 소모재 성급 집중대량구매사업에 참여한 정황을 보면 한해 계약 수요량은 약 45만 3,100개에 달하며 비용의 평균 하락률은 77%에 달했다.

/ 연변일보

따뜻한 국밥으로 환경미화원들의 몸과 마음 녹여



11월 18일, 연길시 건곤가두 연홍사회구역에서는 추위를 무릅쓰고 이른새벽부터 환경미화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관할구역 환경미화원들에게 따뜻한 국밥으로 점심 한끼를 대접했다. 연홍사회구역의 상인 설매씨는 “이제 날씨도 점점 추워지니 앞으로 자주 환경미화원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연홍사회구역의 안서기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추울 때 우리 사회구역의 사무실에 들려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몸도 녹이세요!”라고 친절하게 말했다. 다시 도구를 들고 환경미화에 나선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웠다. / 리성복특약기자

우리 나라 명절 및 기념일 휴가 방법 수정

2025년부터 실시

12일,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 방법〉을 수정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과 2025년 부분적 휴일 배치가 발표되었다. 사회각계에서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해 관련 부문의 책임자가 기자의 취재를 접수하고 해석을 주었다.

◆ 휴일 변경의 배경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 방법〉이 제정된 후 선후하여 1999년, 2007년, 2013년에 수정을 진행했다. 경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구조가 부단히 승격되고 봉사업 비중이 올라가며 생산능률이 향상되면서 객관적으로 휴일 증가에 토대를 제공했고 상응한 요구도 제기되었다. 동시에 휴일을 늘여야 한다는 대중의 목소리도 아주 높았다. 근년에 관련 부문들에서 전국 ‘두개 회의’ 제안, 인터넷 매체, 전문 조사연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군중의 의견 건의를 폭넓게 수집해 휴일 방법 수정에 준비를 잘 해놓았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전문적으로 포치했다.

◆ 총체적 고려 부분

휴일 배치를 최적화하는 것은 력사문화전통, 경제사회발전단계, 산업구조 변화, 전사회 로동능률, 군중의 휴식 여가 수요 등 여러 면의 요소에 관계되며 매 사람의 휴식과 매 단위의 운행에 직접 관계된다. 부동한 군중의 부동한 면의 수요가

다르기에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전사회의 ‘최대공약수’를 구해야 한다. 이번 수정에서는 총체적 안정, 적당한 증가, 구조 최적화, 민의 순응 등 부분을 고려했다.

이번 수정을 거쳐 우리 나라 전체 공민 휴일은 7개 명절에 포함 11일간이던 데로부터 7개 명절에 포함 13일로 2일 늘어났다.

◆ 대체휴일 최적화

대체휴일(调休)에 대한 여러 면의 의견이 현재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대체휴일은 주민들의 가족방문, 관광레저 등 수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동시에 더한층 최적화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번에 법적 공휴일 증가에 결부해 대체휴일 배치를 최대한 최적화했다.

대체휴일 원칙을 명확히 했다. 개별적으로 특수한 명절을 제외하고는 음력설 연휴를 그믐날부터 8일간으로 늘이고 국경절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로동절은 5일간, 양력설, 청명, 단오, 추석은 각기 1일 또는 3일간 연휴로 정했다(수요일인 경우 당일만 휴식). 국경절 연휴에 추석이 겹칠 경우 합해 8일간(2025년, 2028년의 경우) 휴식한다.

대체휴일 배치를 최적화했다. 전체 공민이 휴식하는 휴일은 합리하게 통일 휴식으로 조절, 배치할 수 있다. 개별적 특수명절외에 법적 휴일 전후로 연속 근무일을 일반적으로 6일 이상 하지 않는다.

/ 인민넷

대중형 객차화물차 운전면허 63세까지

공안부 사이트에 따르면 〈점진식 법정 퇴직년령 연장을 실시할 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점진식 법정 퇴직년령 연장에 관한 국무원의 방법〉을 관철하고 대중형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수요를 충족시키며 경제사회발전과 인민대중들의 실제 수요에 더욱 잘 부응하기 위해 공안부는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공안부령 제162호)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공안부령 제162호)은 총 111조인데 이번엔 5개 조항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첫째, 대중형 객차화물차 운전면허증 신청 년령에 대한 규정을 조정했다. 대중형 객차화물차 면허 신청 년령 상한선을 만 60세에서 63세로 연장했다. 관련 규정은 제14조에 있다.

둘째, 대중형 객차화물차 준운전 년령 상한선을 조정했다. 대중형 객차화물차 준운전 년령 상한선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했다. 관련 규정은 제65조에 있다.

셋째, 대중형 객차화물차 운전자의 유연성 법정 퇴직년령 연장으로 인한 운전시간 연장 규정을 명확히 했다. 관련 규정은 제65조에 있다.

넷째, 치륜식 전용기계차, 무궤도전차 및 유궤전차 면허 취소 년령 규정을 조정했다. 치륜식 전용기계차, 무궤도전차 또는 유궤전차 면허취소 년령 상한선을 만 60세에서 만 63세로 늘였다. 관련 규정은 제79조에 있다.

다섯째, 학교 차량 운전 자격 신청 년령과 취소 년령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다. 운전자 학교 차량 신청 자격 년령 상한선을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다’에서 ‘년령이 국가 학교 차량 운전 자격 조건에 부합된다’로 조정하고 학교 차량 운전 자격 취소 년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년령이 국가 학교 차량 운전 자격 조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상위법 〈학교 차량 안전조례〉규정과 일치함을 유지했다. 해당 규정은 제8조, 제92조에 있다.

/ 인민넷 - 조문판

우리 나라 의료보험기금 선불제도 보완

11일,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는 련함으로 〈의료보험기금 선불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해 국가 차원에서 기본의료보험 기금 선불제도를 통일, 보완하고 자금 사용 능률을 높여 지정 의료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다.

기본의료보험기금 선불금은 지정 의료기구에서 의료비를 대신 지불하는 압력을 완화하고 의료봉사 능력을 높이며 보험참가인원의 의료 획득감을 증강하기 위해 설치하는 류동자금으로서 약품과 의료용 소모품 구입 등 의료비 회전과 지출에 사용되며 의료기구 기반 건설 투입, 일상 운영, 채무 상환 등 비의료비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통지는 명확히 밝혔다.

통지는 각 성급 의료보험부문들이 지역에서 총괄적으로 의료보험기금 선불사업을 조직, 전개하도록 지도

할 것을 요구했다. 각 총괄지역의 의료보험부문은 기본의료보호기금 잔금 정황에 근거해 동급 재정부문과 상의하여 관련 선불제도를 연구, 건립해야 한다.

국가의료보장국 관련 책임자는 “기금 안전은 선불사업 실시의 기본 전제로서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지에 따르면 원칙상에서 총괄 지역 종업원 의료보험 총괄기금 루적 잔금으로 12개월 이상 지불이 가능하면 종업원 의료보험 총괄기금 선불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 의료보험기금 루적 잔금으로 6개월 이상 지불이 가능하면 주민 의료보험기금 선불을 실시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미 당시 적자가 발생했거나 12개월 회전잔산의 방법에 따라 본년도 적자가 예상되는 총괄지역은 선불을 하지 못한다.

/ 신화넷